

# 종교학의 학문성과 그 방향

— 북미주에서 본 관찰 —

노영찬\*

미국대학에서의 종교학의 학문성과 현실성

종교학의 학문성의 정립

학문의 “과학성”과 학문으로서의 종교학

9.11사태 이후의 미국대학과 종교학의 위치와 공헌

미국학계의 종교학 연구의 특징과 경향

맺는 말

## 미국대학에서의 종교학의 학문성과 현실성

미국에서 종교학이 본격적으로 일반대학에서 시작된 것은 1960년도에 미국의 대법원(Supreme Court)이 “church and state”의 분리라는 헌법에 기초해서 공립학교에서의 종교 활동에 대한 판결을 내린 다음부터이다.<sup>1)</sup> 이전까지 종교학이라는 것은 학문으로서 독립된 분야라기보다는 미국의 신학교나 사립대학 특히 종교적 교단에서 세운 학교의 신학대학원(Divinity School)에 속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고

\* George Mason University

- 1) 1963년 미국 대법원이 공립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 내린 판결인 켐프-머레이 판결(Schempp-Murray decisions)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판결에서 미국의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은 금지하면서도 동시에 이러한 공립이나 주립학교에서 일반 학과목으로 종교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은 권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공립학교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공공연히 하지 못하게 금지한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이 판결이 일반 세속적인 공립 대학에서 종교를 하나의 학문으로서 가르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대법원의 판결은 일반 세속적 (종교적 교파와 아무 상관이 없는) 주립대학에서 종교를 가르칠 수 있다는 유권적 해석을 해 줌으로써 오히려 종교학이 하나의 학문으로써 대학에서 가르쳐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는, Niels C. Nielsen, “Teaching about Religion: A middle Way for Schools” *Christian Century*, January 4-11, 1984, p.17를 참고하기 바란다.

종교를 공부하는 것은 기독교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동일시되어 왔다. 사립대학이 아닌 일반 주립대학교에서 종교학을 독립된 학과로 설치해서 가르치는 붐이 일기 시작하여 각 주립대학교마다 종교학과가 우후죽순 격으로 솟아나기 시작한 것이 1970년대였다. 이 시기는 미국의 종교학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시기에 속한다. 여기서 종교학은 두 가지 중요한 도전을 받게 되었다. 첫째는 학문적으로 종교학의 학문성을 정립하는 과정이었다. 신학교나 신학대학의 환경을 떠나서 아무런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은 세속<sup>2)</sup> 주립대학(secular state university)에서 “종교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해 나갈 수 있는 바탕을 구축하는 길이고, 둘째는 이러한 학과를 설치하기 위한 행정적인 체제를 갖추는데 필요한 법적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따로 분리된 문제들이 아니고 밀접히 관계된 문제이다.

## 종교학의 학문성의 정립

기독교신학은 주로 특정한 교파나 교단이 운영하는 신학교나 아니면 사립대학교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바도 없고 또 학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필요조차도 없었다. 그러나 일단 세속 주립대학교에서는 종교학이 왜 독립된 학문의 한 “discipline”으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존재론과 그 학문적 정당성 및 현실적 필요성에 대한 합리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미 존재하는 학과, 예를 들면 심리학, 사회학, 철학, 인류학, 경제학 등의 학문과 견주어 어떤 근거에서 종교라는 것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대학에 설치하느냐 하는 문제가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기초 작업의 일환으로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는 종교학이라는 학과를 창설하기 이전에 그 학교의 다른 학과 즉 정치학이나 사회학, 물리학 분야의 교수들이 종교학과를 세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그 당시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Paul Tillich을 1964년에 초청하여 interdisciplinary seminar를 열었다. 이 seminar는 어떤 학과에 속하든지 관계없이 교수,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고

2) 여기서 “세속”이라는 말은 속되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뜻으로서, 종교적인 단체나 어떤 특정한 교단과 관계없이 순전히 국민들이나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미국의 주립대학들은 이러한 의미에서 모두 세속대학이라고 부를 수 있다.

록 하여 종교에 대한 학문적 대화를 시도해 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궁극적 관심”(Ultimate Concern)이라는 책이다. 이 책은 Tillich과 학생들 간의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같은 학교에서 가르치던 맥켄지 브라운(D. Mackenzie Brown) 교수가 편집해서 묶어 놓은 것이다.<sup>3)</sup> Tillich의 seminar가 시험 케이스였다. 학문적으로 종교학이 일반 세속대학에서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질문과 또한 학문적으로 종교학이 다른 학문의 부속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Tillich의 seminar는 긍정적인 대답을 준 성공적 seminar였다. 그 후 U. C. Santa Barbara는 본격적으로 종교학과를 설립했던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반 주립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치는 경우, 주립대학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종교를 포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며 종교를 가르칠 때도 어느 특정한 종교만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치는 방법에서도 변증론적으로 한 종교의 신학을 변호하고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종교라는 것이 인류문화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쳐 온 것인가를 살피고 연구하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 방법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종교)와 국가의 분리”(Thomas Jefferson)를 철저히 하여 주립대학에서 종교학을 가르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반 세속 주립대학교의 종교학과 설립은 북미주 종교학계에 제도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문적인 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종교에 대한 연구가 특정한 교파적인 입장을 떠나 non-denominational, non-sectarian approach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이 분명하다. 종교에 대한 이러한 연구 태도는 이제까지 교파적인 신학교나 신학대학에서는 볼 수 없었던 태도였다. 이러한 종교에 대한 세속적인 접근 방법은 대학에서 종교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일반대학에서 학문으로 인정받고 용납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종교학 방법론의 의식이 종교학을 학문의 세계에서 한 부분으로 인정받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말 할 것도 없다. 또 한편 종교학을 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종교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학문으로서 대학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교학도 다른 학문 즉 사회학, 인류학, 심리학 혹은 일반사회과학에 못지않게 철저한 학문적 방법론을 갖추고 있음을 의식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공

3) D. Mackenzie Brown, *Ultimate Concern: Tillich in Dialogue*, Harper & Row, 1965.

유되어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종교학은 사회과학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사회과학 특히 사회학은 종교학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sup>4)</sup>

## 학문의 “과학성”과 학문으로서의 종교학

### 1. 종교학의 “과학적” 연구(scientific study of religion)의 필요성과 대학교육의 “과학화”의 상호 관계

현대의 “과학적 사고”가 지배하는 미국의 대학에서 인문과학(인문학)으로서의 종교학의 위치를 일반 세속 주립대학 안에서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종교학이 학문적인 방법론에서는 물론 인문과학에 속하지만 그 나름대로 “과학적” 방법론을 가지고 있음을 밝힐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종교학에서도 “scientific study”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또 심지어는 학술지로서 “Journal for Scientific Study of Religion”이 나오기도 하였다. 이 방면의 지도적 학자들은 주로 종교를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종교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되었다. 그리고 물론 종교학의 이론을 연구하는 학자들(예를 들면 Ninian Smart같은 학자)도 이 방면에서 과학성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물론 Smart는 종교현상학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근본적으로 종교 이해를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방법으로 하

---

4) 종교의 본질(essence)이나 또는 종교의 기원(origin)을 찾는으로써 종교를 학문적으로 이해하려고 한 역사는 이미 오래 되었다. 서구사상사에서 이미 Kant, Schleiermacher, Rudolf Otto, William James 등이 종교의 본질을 찾으려고 했으며, 한편 인류학자 혹은 사회인류학자들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Lévy-Bruhl, James Frazer, Herbert Spencer, E. B. Tylor, Raffaele Pettazzoni, Radcliffe-Brown, Evans-Pritchard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대체로 미국의 경향은 종교연구에서 사회학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경향은 미국의 종교학이 종교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진다는 뜻도 될 것이며 또한 학문의 풍토에서 종교의 기원이나 본질이라는 존재론적인 질문보다 종교가 가지는 사회나 문화적인 기능에 더 관심을 가지는 것이 미국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Emil Durkheim, Max Weber, Talcott Parsons, Clifford Geertz, Peter Berger, Robert Bellah 등이 종교학에 미친 영향은 지대할 뿐 아니라 또 동시에 이들은 인간사회나 문화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종교가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종교가 하나의 학문으로 등장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지성사회에서 이러한 학자들의 노력은 미국의 지성들에게 종교라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는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대학들에서 종교가 학문으로서 연구될 만한 가치를 인정받는 데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이다.

고 있다.<sup>5)</sup> 일반적으로 미국사람들은 이성이나 합리적 성격을 높이 평가하며 실험을 통한 검증을 중요하게 여긴다. 이러한 인식론적 입장이 종교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일반 세속대학에서 가르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세속대학에서 물리학이나 철학이나 사회학이 독립된 학과로서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품을 사람은 없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철학 같은 과목은 어느 대학이나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이미 가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학이 왜 일반 세속 주립대학에 존재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종교학자들의 설득력 있는 대답이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물론 사립대학이나 종교교단이 세운 대학들에서는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왔다. 한국도 서울대학교 같은 국립대학에서 종교학과를 두고 종교학을 가르친다고 할 때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나는 형식적이고 법적인 문제로서 종교를 가르치는 것이 합법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내용적인 면에서 종교학이 어느 학문 못지않게 학문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의 대학들이 학문적 성격으로서 받아들이는 기준은 역시 과학성이다. 이러한 기준이 종교학의 과학적 성격을 더 뚜렷이 하려고 하는 태도를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보여주어 왔다는 것이다.

## 2. “과학적 사고”와 학문의 보편성

하나의 학문으로서 종교학을 성립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학문성의 가장 보편적인 원리인 과학적 사고와 합리적 이성적 방법론에 의한 접근이 종교학을 하나의 학문으로서 합리화(legitimize)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었다. 예를 들어서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같은 학자는 이 점을 강조해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과학적”(scientific)이라는 말을 즐겨 써왔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과학적”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에 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도 있다. 순전히 자연과학에서 의미하는 과학이란 뜻보다는 인문사회과학이라는 의미에서 과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인문사회과학의 “과학성”이란 것이 무엇을 두고 하는 말인지는 의심의 여지가 아직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 종교학의 과학성이란 합리나 이성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수집 분석해서 조직적인 체

5) 그 예로서 Ninian Smart, *The Science of Religion and the Sociology of Knowledge: Some Methodological Question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3을 보라.

계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그 중심을 이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종교학은 신학과 학문적 성격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신학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에서가 아니라 “계시”에서도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 경우가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지라도 “계시”라는 초월적인 면을 전제하고 있다.<sup>6)</sup> 그러나 종교학자들은 이 점에서 신학이 가지는 학문성과 종교학의 학문성을 구별한다. 종교학자들은 종교학이 가지는 학문적인 성격을 더욱 뚜렷이 하기 위해서 신학적 접근 방법을 의식적으로 피하고 훨씬 더 역사적이고, 현상학적인 면을 강조한다. 그리고 신학이 가지는 “고백적”(confessional) 방법론을 지양하고 훨씬 더 객관적이고 묘사적(descriptive)인 방법론을 택하고 있다.<sup>7)</sup>

### 3. 합리적 방법론의 한계성

그러나 종교학을 순전히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방법으로만 연구함으로써 종교학을 다른 인접학문 즉 인류학이나 사회학, 또는 역사학이나 심리학으로 축소하는 “reductionism”에 빠질 수도 있음을 경고하는 파니카(Raimon Panikkar)와 같은 학자는 Smart와는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한다. 종교에는 종교적인 경험이나 종교적인 사고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파악될 수 있는, 종교만이 가지는 “*sui generis*”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sup>8)</sup> 여기서 종교학이 가지는 특수성을

6) 특히 Karl Barth같은 학자는 신학의 출발과 근거를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계시”에 두고 있으며, 그리고 Paul Tillich같은 학자도 “계시” 자체로부터 그의 신학이 출발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성”과 “계시”의 상관관계를 항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신학의 방법론과 종교학의 방법론의 차이를 볼 수 있을 것이다.

7) 종교학의 방법론이 종교의 본질에 대한 추구보다 종교의 현상(phenomenon)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종교학이 가지는 특수성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상학적 방법론은 철학적으로 볼 때는 훔뮐(Husserl)이나 멀로폰티(Merleau-Ponty) 등에서 나왔지만 철학적 현상학을 종교학적으로 도입해서 “종교현상학”으로 새롭게 정립한 학자들도 많이 나왔다. W. Brede Kristensen, Geo Widengren, Mircea Eliade, 그리고 최근의 Eric Sharpe 등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들은 종교의 “정의”(definition)가 아니라 현상학적 관찰과 묘사(description)에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신학의 방법론은 신앙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고백적인 면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종교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현상에 대한 관찰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 그러나 좀더 깊이 들어가면 신학이나 종교학이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둘 다 이성이나 합리성이나 논리의 태두리 안에서만 할 수는 없고 인간의 경험이나 직감이나 감정이 가지는 차원까지도 포함해야 한다는 면에서 신학과 종교학이 어느 정도의 공통성을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찾고 나아가서 다른 인문 사회과학이 보여주지 못하는 차원을 종교학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파니카의 입장은 단순히 신학적 학문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주장도 아니며 과학적 방법론을 전적으로 무시하자는 태도도 아니다. 다만 종교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다른 학문으로서는 이해될 수 없는 특이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러한 차원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과학적인 방법만으로는 파악이 될 수 없다고 해서 학문의 범위에서 제외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서 “학문”의 성격이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합리성이 있어야 함은 마땅하지만 이러한 과학이나 분석적 방법에 의해서 파악이 되지 않는 차원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차원은 “경험”이나 “직관”이나 “느낌”의 세계에서 인식되는 “삶”의 세계임을 인정하고 추구하는 태도가 종교학이 가지는 특이한 성격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물론 종교라는 현상 자체가 인류문화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존재해 온 복합적인 차원을 가진 현상이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학문 방법을 동원해서 연구되어야 할 현상으로서, 본질적으로 “inter-disciplinary”한 접근을 요구하는 학문분야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여러 학문을 연결시키는 “inter-disciplinary”한 면만을 강조하게 되면 종교학 자체의 학문으로서의 “discipline”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종교심리학, 종교사회학, 종교인류학, 종교문학, 종교철학 등의 과목들은 따로 종교학과가 없다고 해도 심리학과, 사회학과, 인류학과, 문학이나 철학과에서 가르칠 수 있다. 그러나 종교학은 단순히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문학이나 인류학의 관점에서 종교라는 현상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종교의 관점에서 역사나 문학이나 사회나 인간의 심리나 인류의 발달사나 철학이나 사상을 보자는 것이다.

4. 여기서 중요한 issue로 등장하는 것은 “종교학”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영어로 “study of religion”과 “religious studies”의 차이점을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종교학”이란 말은, 종교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즉 종교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학문이라는 의미에서 종교학이란 말을 쓸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Harvard는 아직도 “The Committee on the Study of Religion” 혹은 “Center for Study of World Religions”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러나 또 한편 중

8) 일반적으로 Panikkar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저서, *Myth, Faith, and Hermeneutics*, New York: Paulist Press, 1979, 그리고 특별히 그의 저서 *Intra-religious Dialogue* (revised edition), New York: Paulist Press, 1999, pp.73-102를 참고하기 바란다.

교라는 현상자체가 다른 현상과 다른 특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종교현상을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적으로 종교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만족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현상을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역사학으로 축소해 버릴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회학적으로 또는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종교만이 가지는 특수한 차원은 종교적인 “눈”으로만 파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단순히 종교를 인류학이나 사회학이나 심리학의 대상으로서만 연구할 때 종교학이란 그 연구의 대상만 종교라는 것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사회학이나 인류학이나 심리학이나 철학의 한 분야로 떨어지고 만다는 것이다. 종교학이 한편으로는 이러한 여러 분야의 학문을 다 동원시켜서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서 “interdisciplinary studies”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 사회과학이나 인문과학의 혼합이 곧 종교학인지는 물어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인류학이나 사회학의 하나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종교라는 현상 그 자체가 학문의 주체가 되는 종교학의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종교학이란 이런 의미에서 학문의 대상(object)일 뿐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학문의 주체(subject)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학이 학문으로서 특수한 영역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가 종교학의 객체나 대상(object)일 뿐 아니라 동시에 주체(subject)가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물론 종교가 다른 학문(사회학, 심리학, 철학, 인류학)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종교가 학문의 주체(subject)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거나 설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종교학이 학문으로서의 주체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종교가 다른 어떤 discipline으로도 충분히 이해될 수 없는 “irreducible”한 차원을 가지고 있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더 나아가 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특수한 차원이 종교의 창(窓)을 통해서만 보이고 이해된다는 점에서 종교가 연구나 공부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회학의 창, 인류학의 창, 철학의 창, 역사의 창으로서 보이지 않는 인간의 현상을 종교라는 창(窓)을 통해서 이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종교의 창은 다른 창이 이제까지 보여주지 못하던 삶의 차원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 종교의 창을 통해서 종교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자체, 가족, 사회, 국가, 정치이념, 경제체제 등등의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보고 이해하자는 것이다. 이런 뜻에서 보면 종교현상이 단순히 다른 학문의 대상이 되기보다는 종교현상으로 다른 학문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분석해서 다른 학문이 제공하지 못하는 관점을 제공해 줄 때 종교학이라는 것이 주체성을 가진 학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체로서의 종교학이 성립될 때 종교학은 단순히 종교현상만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현상을 이해하고 연구하고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종교라는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와 자연에 대한 이해를 더 깊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우리가 학문하는 방향 그 자체를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학이란 “종교적”(religious)으로 “연구”(studies)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종교학이란 종교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학(學)이라는 말 자체를 새롭게 이해하고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종교학(宗敎學)이란 “학”(學)이라는 것이 “종교”를 modify할 뿐만 아니라 “종교”가 “학”(學)을 modify하는 역할도 하는 학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종교학이란 인문학 방법론 자체에 새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제까지 서구학문의 방법론은 서구 근대 사상에서 기원하는 이성적 사고, 합리적 사고, 분석적 방법이 지배해 왔다. 특히 이러한 학문의 방법론은 서구가 서구 역사에 있어서 세 가지 중대한 사건들, 즉 종교개혁(Reformation), 인문주의(Renaissance), 계몽사상(Enlightenment) 등을 경험하면서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학문이라는 것은 철저히 이성과 합리와 분석과 실험과 검증의 방법을 통과해야 하고 객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의 성격은 역시 인간중심(anthropocentric)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서구적 성격의 “연구”나 “학”은 처음에는 자연과학(natural science)의 방법론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적 방법론은 곧 사회과학의 방법론에도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서 경제학 특히 미시경제학(微視經濟學, microeconomics)은 그 좋은 예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사회과학뿐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humanities)까지도 지배하기 시작했다. 최근에 와서 사회학은 물론이고 심리학, 역사학까지도 사회과학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방법론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구의 “과학적” 방법론이 보편화되고 세계화되면서 이제는 어떤 학문 이든지 학문으로서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려면 이러한 과학적 방법론과 객관성을 가져야만 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學)이라는 개념

은 단순히 서구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하나의 “방법”, “기구”, “연장”으로 이해되고 말았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학”(study)이 되고 말았다.

그렇다면 “학”(學)이라는 것이 수단임과 동시에 목적이 된다는 개념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선 “학”(學)에 대한 동과 서의 차이가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서양은 “학”(學)을 순전히 “지적”(知的)인 차원에서만 이해했으나 동양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학”(學)이란 단순한 지적인 작용뿐만 아니라 전인적 작업이었고 단순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뿐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sup>9)</sup> 이러한 면에서 종교학이란 종교적 차원을 학문의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종교성이라는 인간의 본질을 이미 전제로 하고 인간의 종교적 차원을 이성이나 합리나 분석의 한계를 벗어나서 전인적(全人的) 차원에서 찾아보는 것이 된다. 이렇게 할 때 이성뿐 아니라 감성, 개념뿐 아니라 상징, 합리적 사고뿐 아니라 직관적 사고, 분석적 방법뿐 아니라 통전적 인식 등을 포함하는 “학”(學)이 된다는 것이다.<sup>10)</sup> 진정한 의미의 종교 현상학은 바로 이렇게 종교를 종교(religion *qua* religion)로 보는 입장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사학”(history of religion)은 단순한 역사학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역사를 종교라는 현상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종교현상학(phenomenology of religion)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종교사는 역사학이라는 학문(disipline)에 속하기보다는 종교학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아직까지 미국대학이 종교학이 다른 학문과 비교해서 가지는 학문적 독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거나 인정을 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인문과학으로서의 종교학이 가지는 독특성은 앞으로도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종교학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격 중에 학문과 학문을 연결시키는 “interdisciplinary studies”한 면이 있다는 것과 교차문화(cross-cultural)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종교학은

9) 한문의 “학”(學)이나 우리말의 “배움”이라는 개념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이며 정신적인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단순한 기술(skill)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으로서 “배움”이 이해되었다. 유교전통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수신(修身)의 과정으로도 이해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배움의 개념을 현대식으로 표현하면 단순한 “기술적 지식”(technical knowledge)이 아니라 “존재론적 지식”(ontological knowledge)을 포함한 배움을 의미하는 것이다.

10) 이성과 합리와 분석적인 기능으로서의 배움이라는 개념은 극히 최근의 근대 서구에서 나온 개념이다.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이렇게 이원론적 의미에서 “이성”과 “감성”을 철저히 구분하지 않았으며, 이성과 합리만을 다룬다는 의미의 “배움”이라는 개념은 우리의 전통적 사고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그 필요성을 과시하고 있다.

### 9.11사태 이후의 미국대학과 종교학의 위치와 공헌

1. 9.11사건은 미국사회의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끼쳤다. 특히 미국대학은 이슬람은 물론이고 비 서구문화나 종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9.11 직후 미국의 각 대학들은 이슬람 분야의 강좌를 다투어서 내기 시작하였다. 이 바람에 이슬람 학자들이 대학에 많이 임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종교의 다원성과 복합문화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도 차츰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특히 이슬람의 근본주의(Islamic fundamentalism) 뿐만 아니라 종교일반에 걸쳐서 “근본주의”(fundamentalism)에 관한 연구와 강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비교종교학이나, 종교를 cross-cultural하게 연구하는 approach는 미국 대학에서 큰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이는 최근의 종교 간 분쟁, “문명과 문명의 충돌”(Samuel Huntington) 같은 현상에 대해 종교학이 큰 공헌을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면을 가지고 있다. 비교 문화에서 종교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이 미국대학에서 종교학이 앞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고 있다. 미국대학들의 국제화 혹은 지구화(globalization)에 대한 관심과 함께 미국대학의 교과 과정도 크게 바뀌고 있다. 미국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 지금이야말로 종교학이나 비교종교 그리고 종교 간의 대화 같은 과목들이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sup>11)</sup>

종교학에 있어서 동양 종교과목이나 비교 종교학, 종교사 같은 분야는 미국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있다. 이러한 과목들은 미국대학에서 “non-Western culture”나 “global understanding”의 과목으로서 인기가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철학과는 종교학파가 가지는 융통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철학과는 주로 서양철학 일변도이기 때문이다. 미국대학이 점점 종교나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종교학과는 이러한 경향에 재빨리 적응할 뿐 아니라 이 방면

11) 한 예로서 최근 Ford Foundation에서는 종교 간의 갈등과 종교의 다원성 및 복합성에 대한 연구 project를 각 대학에 광고 모집해서 당선된 project는 10만 달러씩 보조하겠다고 하였다.

에서 주역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철학과는 그러한 융통성을 지니지 못하는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 참고로 동양철학이나 non-Western분야의 사상과 철학은 대부분의 경우 종교학과에 들어와 있다.<sup>12)</sup>

3. 종교와 정치의 문제가 미국에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 종교적 이념과 정치적 이념의 제휴나 충돌, 그리고 종교윤리와 가치관의 제휴나 충돌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미국에서 논의되는 문제 가운데 안락사, 임신중절, 배아 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생명과학의 등장과 종교윤리 문제 등은 종교학이 대학에서 그 위치를 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4. 대학 안에서 종교학은 그 위치가 항상 보장되어 있는 학과가 아니다. 미국대학에서는 때로 종교학과를 없애기도 한다. 종교학은 미국대학이 사회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유용성을 융통성 있게 운용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항상 정당화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종교학이 가진 이러한 특수한 조건이 종교학이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더 창의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미국학계의 종교학 연구의 특징과 경향

미국학계의 종교학 경향을 간단히 요약하기는 어렵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주관적 관찰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볼 때, 21세기에 들어선 서구의 종교학계는 20세기가 누렸던 거성들의 후광을 아직도 누리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Mircea Eliade, Paul Tillich, W. C. Smith, Ninian Smart, Raimon Panikkar, John B. Cobb Jr., Huston Smith, Paul Ricoeur, John Hick 등과 같은 학자들이 사라져 가는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직도 이들과 버금가는 학자들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Chicago는 아직도 Eliade의 “신화”가 지배적이고 Harvard는 W. C.

12) University of Hawaii가 철학과 안에 인도, 중국, 일본 등을 포함한 동양 철학과목을 포함하고 있음은 특이한 예외에 속한다.

Smith의 “전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Harvard는 종교학의 substance,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각 종교전통에 강한 강점을 두어서 그 전문가들을 많이 배출시켰다. Chicago는 반면에 종교일반의 전체적 현상을 이해하는데 집중해 왔다.

전통적인 사립대학교들과는 달리 세속적인 주립대학교로서 대표적인 학교는 U. C. Santa Barbara와 University of Virginia이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Santa Barbara는 전통적으로 cross-cultural study of religion을 중점적으로 해왔다(Ninian Smart나 Raimon Panikkar). 그러나 최근에 와서 Santa Barbara는 종교사회학이나 미국종교 연구 등에서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Phillip E. Hammond, Wade Clark Roof, Mark Juergensmeyer, Catherine L. Albanese 등이 주역). University of Virginia의 종교학은 특히 티베트 불교나 남아시아 전통 쪽에서 알려진 전문가들이 많고 일반적으로 폭넓은 종교학과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이 학교의 Jeffrey Hopkins는 Columbia에 있는 Robert Thurman과 더불어 미국의 Tibetan Buddhism의 최고의 권위로 꼽히는 학자이다.

미국에서 종교학이 일반 세속대학에서 세속적 학과로서 세속적 방법론으로 접근됨에 따라서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들에서도 점차 일반대학의 대학원 과정, 특히 박사 과정은 일반 종교학과와 학문 방법론이나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종합대학교에 속해 있는 신학대학원도 학문적인 학위인 Ph.D.는 일반 문리과 대학 대학원의 종교학과에서 주도록 되어 있다. 이런 형식적인 면을 떠나서 학문적인 입장에서도 훨씬 더 다른 인접학문과의 interdisciplinary approach를 많이 강조하는 경향으로 나가고 있다.

최근 종교학이 생태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종교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은 종교학이 이러한 새로운 사회적 관심과 연결하여 인접학문과 “interdisciplinary study”를 하고 있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수년 전부터 Harvard의 Center for Study of World Religions에서는 세계의 여러 종교전통들과 생태학을 연결시키는 학회를 열어 왔고 그 결과를 책으로 출판해 내고 있다.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에서도 종교와 생태학에 관한 새로운 분과를 열고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sup>13)</sup> 이 외에도 종교와 과학(religions and science)에 관한 연구도 잘 알려진 바와 같이 Templeton Foundation의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다.

13) Religions of the World and Ecology Series 는 Mary Evelyn Tucker 와 John Grim의 공동 편집으로 Harvard Press에서 나오고 있다.

## 맺는 말

북미주에서의 종교학의 전망을 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거시적으로 조망을 해 보았다. 더 구체적으로 종교학 각 방면의 세부적인 면을 살펴보기에는 제한된 지면이므로 이 자리에서는 종교학 자체의 세부적인 연구 경향을 살펴보지는 못 했음을 밝혀둔다. 종교학이라는 학문은 북미주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미국의 대학들이 거의 다 종교학과를 가지고 있거나 또한 종교학과가 없더라도 종교학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 지난 30년여 동안 종교학이 북미주에서 새로운 학문으로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해 온 것만은 사실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은 미국종교학회(American Academy of Religion)가 북미주 뿐 아니라 세계 어느 학회보다 더 큰 학회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지금 미국종교학회의 연례 모임에는 등록자가 8,000명 선에 육박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 상태에 있다. 이러한 양적인 증가 현상 때문에 미국종교학회는 미국성서학회(Society of Biblical Literature)와 매년 공동으로 학회를 해 왔으나 2007년부터는 따로 나누어 학회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아무리 큰 도시에서 하더라도 이 두 학회를 공동으로 수용할만한 호텔이나 회의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실정도 지금으로서는 기독교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독교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한국의 종교학회가 기독교학회를 포함하고 흡수해야 될 것이다. 특히 종교 간의 대화를 위해서는 기독교도 이러한 서로 다른 종교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에 참여하는 것이 학문적으로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